

포스트 코로나... 5·18 41주년 비대면 행사 늘린다

구상 단계부터 다양한 대비책...전야제·국민대회 등 '플랜B' 마련
'임을 위한 행진곡' 챗린지·오월캠페인 등 일부 온라인으로 준비
SNS 활용 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예년과 같이 준비하되 감염 확산의 정도를 감안한 탄력적인 행사 제제로 진행된다. 5·18전야제와 국민대회·부활제 등과 같이 행사 성격상 대면 행사인 경우에도 감염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완벽히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는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에 맞춘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도 예년과는 다른 점이다.

11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펜데믹 현상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SNS를 적극 활용한 시민참여와 자발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행사의 기본틀을 구상한 것이다.

행사 주최측이 지난해 40주년을 맞아 5·18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준비했던 기념행사들이 코로나로 축소·변경돼 운영된 점을 감안, 올해는 구상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대비책까지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온라인 사업으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오월캠페인' May Action(오월행동)이 준

비되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대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챗린지도 온라인 상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최초로 녹음한 사람을 시작으로 SNS상의 추천 릴레이 방식을 통해 전국과 해외에서도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오월(온라인)홍보단인 '오월이들'을 꾸려 SNS에 각종 홍보 글을 올려 5·18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제41주년 5·18기념전야제·민주평화대행진·오월풍물굿·국민대회·부활제·오월역사탐방·대동주먹밥행사·오월 문화제 등도 일단 기존의 대면 방식으로 준비되지만, 집합행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비대면 방식의 기념행사 계획인 '플랜B'도 준비하고 있다.

3월 중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5·18 기념재단도 5·18 41주년 기념사업을 코로나19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한다. 기념재단은 국제사업과 프로그램 진행, 오월학교, 문화·학술 행사 등을 소규모, 비접촉, 비대면, SNS 및 콘텐츠 중심의 기념사업을 치를 계획이다.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소통도 강화한



‘미얀마 민주화지지’ 광주연대 발대식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지지 광주연대' 발족식이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다. 41주년 5·18기념사업에서 생산된 학술 행사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5·18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5·18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18기록물 홍보영상 제작 등을 준비하는 한편 기록물을 기증한 개인과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현판을 제작해 5·18 역사 정립과 진실규명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

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을 포함해 등재 이후 지속적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전시하는 특별전시전은 등재 기념일인 5월 25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

학부모 학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이 올해 2만원 추가 인상됐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도 3만원 인상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3~5세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지난해 24만원에서 올해 26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2년 20만원에서 2013년 22만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됐다가 2020년 24만원으로 인상됐다. 1년 만에 다시 추가로 2만원 올랐다.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19년 월 65만 원이던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 지원금을 2020년 68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다시 71만원으로 올렸다.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 시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이버로 번지는 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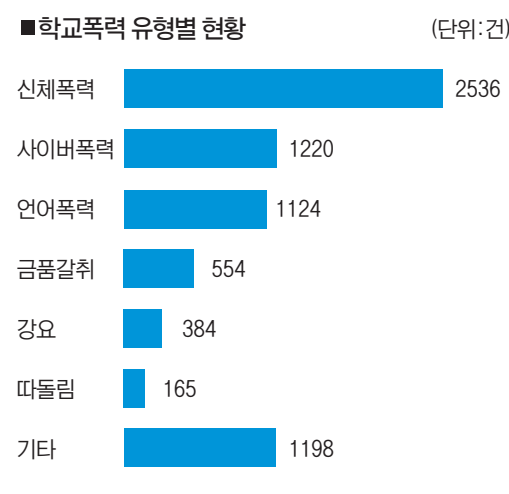
지난해 광주 69건·전남 151건

'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수업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이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은 ▲신체폭력 2536건(35.3%) ▲사이버폭력 1220건(17%) ▲기타 1198건(16.7%) ▲언어폭력 1124건(15.7%) ▲금품갈취 554건(7.7%) ▲강요 384건(5.3%) ▲따돌림 165건(2.3%)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중·고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8.8%·전남 15.7%였다. 광주의 경우 신체폭력 120건, 사이버폭력 69건, 언어폭력 69건, 금품을 빼앗는 행위 41건, 강요 29건, 따돌림 7건, 기타 33건 이었다. 전남은 신체폭력 341건, 언어폭력 222건, 사이버폭력 151건, 금



품을 빼앗는 행위 33건, 강요 33건, 따돌림 18건, 기타 166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속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2년 연속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선정

광주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성과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전환 이후 현재까지 5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유망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

한 초기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초기창업팀을 모집해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지원, 투자연계,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대 창업지원단 최완석 단장은 "광주대가 지역 창업선도대학 임무를 수행하며, 창업 문화 확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창업생태계 조성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동강대,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선정

동강대학교가 최근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2023년 1월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또 동강대는 광주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선정돼 내년 말까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관

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동강대는 지난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전·하반기 1·2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의 경우 4월16일부터 대면강의로 진행하며, 보수교육은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1·2급 승급)은 온라인 실시간의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